

## [준PO 4차전] LG 양상문 감독 "류제국 믿는다...5차전 갈 생각 없다"

등록 2016.10.17 16:56:36 | 수정 2016.12.28 17:47:31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6 KBO 준플레이오프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2차전 경기, LG 양상문 감독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2016.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류제국, 믿는다."

LG 트윈스 양상문 감독이 준플레이오프(PO) 4차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류제국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양 감독은 1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준PO 4차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차피 1~2점 차 승부다.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제구력에 문제가 없다면 류제국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LG는 준PO 전적 2승1패를 기록 중이다. 이날 승리를 거두면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한다. 패할 경우 오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5차전을 치러야 한다.

류제국은 올해 13승11패, 평균자책점 4.30을 기록했다. 팀내 최다승 투수다.

올 시즌 류제국은 넥센전에서 4경기에 등판해 3승1패 평균자책점 2.28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 피안타율도 0.247로 좋은 편이고, 피홈런은 없다.

류제국은 KIA 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승리투수가 되며 팀을 준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양 감독은 4차전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5차전까지 갈 경우 LG에 강한 앤디 밴 헤켄이 선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도 허프를 제외한 모든 투수들이 불펜에서 대기한다"고 말했다.

상대 투수 스콧 맥 그레거에 대해선 "아무래도 초반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타순이 1~2번 정도 돌면 우리 선수들이 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양 감독은 이날 선발 라인업으로 김용의(중견수)-이천웅(좌익수)-박용택(지명)-히메네스(3루수)-오지환(유격수)-채은성(우익수)-양석환(1루수)-정상호(포수)-손주인(2루수) 순의 타선을 내세운다.

그는 "5차전까지 갈 생각이 없다.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hb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